

# 헌재 소장공백 50일... 권위 추락 더이상 안된다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14일 운영철 전 소장이 퇴임 이후 50일 가장 소장의 공석 때문에 8명의 재판관만으로 기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 정쟁으로 훼손된 헌재의 권위회복을 위해서도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더구나 지난달 21일로 전효숙 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법적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에 현재 수장 공백사태를 이제는 종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헌재 수장 공백으로 헌재 고유 업무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기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재판관 8명으로 첫 평의를 열고, 지

## 국가적 현안처리 미룬채 기형운영 임명 절차 법적 문제는 이미 해소

지난달 26일 결정을 선고했다. 평의는 소장이 주도하기 때문에 평의는 권한대행인 주심회 재판관이 이끌었다. 이날 평의는 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헌법소원 등 비교적 심리가 어렵지 않은 사건들 위주로 결정 선고를 이뤄졌다.

하지만 중요 사건들의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친인척 겸직 및 임명 제한, 임원집행정치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헌법소원은 일정상 내년 중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야 의원 23명이 지난 9월 7일 한미

FTA 협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도 시한인 6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헌재소장 임명의 법 절차 문제가 해소된 만큼 청와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 후보를 먼저 재판관에 임명한 뒤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 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장 공백이 더 이상 계속되면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지는 등 헌재의 기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의를 내리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현재 지난 9월 14일 이후 50일 가까운 소장 공석 사태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새 외교안보팀 송민순 주도?

## 수장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입지 부각...무계중심 이동

참여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팀 '라인업'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외교장관에 내정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다.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 기존 외교안보팀 수장 전체가 물갈이 됐지만 송 실장만 말을 갈아타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외교안보 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는 안보실장으로서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번 인선은 그 만큼 그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인선에서 송 실장이 참모의 신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재량권을 가진 외교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정부 외교안보팀에서의 그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NSC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대체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 것도 송 실장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계속되면서 6자회담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송 실장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

안 마련을 합의해 돌파구를 찾아내기도 하는 등 6자회담 수석대표 당시 '9.19 공동성명' 산파역 담게 협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이다.

평소 타고난 성실함과 똑심, 치밀함이다. 이 같은 창의적 외교력이 노 대통령의 신뢰를 깊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개편 회오리바다, 후임 안보실장 인선이라는 '이중 난관'을 뚫고 외교장관으로 발탁되는 것은 북한 핵실험 이후 6자회담 관련국들을 상대로 한 치밀한 외교력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만큼 책임자가 없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중국, 미국의 3자 합의로 전격적으로 6자회담을 재개기로 합의함에 따라 송 실장이 외교부 수장으로 어떤 진가를 발휘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각별한 신뢰를 쌓고 있고, 부시 행정부의 핵심 외교 라인업인 라이스 국무장관, 해들리 보좌관과 '핫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그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외교안보팀 개편에서 다른 부처 수장들이 대부분 내부 전문가 출신의 발탁인사들이고, 정치인 출신인 이재정 통일장관도 정동영 전 장관같은 '실세 정치인' 콘셉트보다는 '전문가' 콘셉트로 발탁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새 외교안보팀에서 송 실장쪽으로 무게가 자연스럽게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외교통상부장관에 내정된 송민순 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급 내정자 4명 프로필

### 송민순 외교 6자회담 대표 맡은 '똑심의 협상꾼'

자타가 공인하는 '똑심의 협상꾼'. 1990년대 초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담당하던 미주국 안보과장 시절, 끝까지 밀어붙이는 능력으로 협상상대인 미측으로부터 인정받아 군인보다 더 군인같다는 뜻에서 '커틀(colonel', 대령) 송'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인 지난해 국제

무대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절묘한 설득과 때론 '압박전술'을 구사해 결국 9.19 공동성명을 탄생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부인 이명숙(53)씨와의 사이에 1남1녀. ▲경남 진양(58) ▲서울대 독문학과 ▲대통령 국제안보비서관 ▲북미국장 ▲주폴란드 대사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청와대 안보실장

### 이재정 통일 종교인 출신...대북 포용정책 소신

종교인 출신 정치인으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평이다. 온화한 성격과 추진력을 겸비했다.

성직자로 성공회대 총장을 지낸 이 내정자는 1999년 새천년민주당을 통해 정치권에 입

문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유세본부장으로 활약, 대선 공신으로 여겨진다. 부인 박영희(55) 여사와 1녀. ▲충북 진천 ▲고대 독문과 졸업 ▲부정방지대책위원장 ▲성공회대 총장 ▲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고문

### 김장수 국방 군내 핵심보직 두루 거친 작전통

야전 주요 지휘관과 정책부서의 작전·전략 분야의 핵심보직을 거친 군내 대표적인 작전·전략통.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면서도 업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할 정도로 빈틈이 없다는 평이다. 군 선후배들로부터 '장수다운 장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뒤 '육군 혁신기확대'를 만들어 '혁신 총장'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부인 박효숙씨와 사이에 1남1녀. ▲광주(58) ▲광주일보 ▲육사 27기 ▲1군 사령부 작전처장 ▲6사단장 ▲7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 김만복 국정원장 74년 中情 공채 출신...해외근무 16년

국내와 해외, 북한 정보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국정원맨'. 1974년 공채로 중앙정보부에 발을 들여놓은 뒤 국내정보를 거쳐 16년 넘게 해외 분야에서 일했고 기획과 인사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특히 국제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부지런함과 성실성은 터의 추종을 불

허한다고 평평이 나 있다. 2004년 2월 국정원 기초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에는 국정원 개혁인인 '비전 2005' 작성을 주도했다. ▲부산(60) ▲부산고 ▲서울대 법대 ▲국정원 기초실장 ▲국정원 제1차장

# '일심회' 수사 힘 빠지나

## 인사 청문회까지 국정원 신·구원장 동거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자로 김만복 1차장이 내정됨에 따라 국정원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일심회'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미묘한 기류의 배경에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따라 신임 원장이 공식 취임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여일이 걸린다는 점이 깔려 있다. 결국 신임 원장은 11월말 이후에야 취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차장의 원장 내정으로 당분간 한 지붕 아래 사실상 두 원장의 '동거'가 불가피해졌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내부의 무

계 중심이 '뜨는 원장'인 김 차장에게 쏠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 권력이동이 한 지붕 아래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번 인사로 더욱 주시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386 운동권 출신들이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일심회' 사건의 함배다.

그 이유는 김승규 원장이 대공 수사라 인을 돌려하며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사건이 힘을 받았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혹이나 수사배경을 놓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 원장의 이임으로 수사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 함배를 김 원장의 거취와 연결시켜 보는 관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이 있는 기간이 길수록 수사결과와 말뚝이 깊어질 가능성을 엿보는 막연한 관측인 셈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반응은 이번 인사로 "수사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김 차장은) 30년 넘게 정보맨으로 근무한 만큼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경계했다. /연합뉴스

양파 정식면적을 조금씩 줄이면 재배능가 모두가 즐거워집니다

천둥이 쏟아질 양파, 좋은 기류 맞으세요! 작년부터 조금씩 줄이세요!

신선한 맛 → 정신과 건강 → 맛있는 밥

농부들께 감사드립니다